

돌봄의 질 개선 방안: 아이돌보미 활동을 중심으로*

Strategies to Improve the Quality of Care
: Focusing on the Activities of People Who Provide Childcare

광주대학교 유아교육과
전임강사 김 승 희**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Gwangju University
Instructor Seunghye Kim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연구 결과 |
| II. 이론적 배경 | V. 논의 및 결론 |
| III. 연구 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activities of people who provided childcare based on their perspectives and situations, and suggest strategies to improve the quality of care. This study collected data through in-depth interviews and analyzed the data using Gee's discourse analysis method. The participants were 13 people who provided childcare, and criticized the low wages and unfair treatment. The results of this study recommended three strategies to improve the quality of care: stable and reasonable wages, improvement in treatment and status, and a system of communication among people who were related to childcare. Compared to previous research, this study fundamentally questioned the quality of care and investigated the answer to improving the quality of care.

Key Words : 아이돌보미(people who provide childcare), 돌봄의 질(quality of care), 질적 연구(qualitative research), 담화 분석(discourse analysis)

* 이 논문은 2010년 여성가족부의 자녀양육 지원사업 개선방안 -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 에 관한 연구보고서 작성을 위해 수집한 자료의 일부를 사용하였음.

** 주저자, 교신저자: 김승희 (seuhkim@gwangju.ac.kr)

I. 서론

여성가족부가 2011년 발표한 여성인력개발 정책가이드에 따르면 2010년 기준 우리나라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은 53.9%로 다른 선진국인 덴마크의 77.3%와 영국의 70.2%에 비해 크게 떨어지고 있으며, OECD 평균인 61.3%에도 크게 못 미치고 있다. 또한 고학력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최근년도에 오히려 감소하여 63.0%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OECD 평균의 82.6%에 비해 현저하게 낮음을 보여주고 있다(김중숙 외, 2010). 전체 비경제활동인구에서 여성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약 66%이며, 2010년 기준 여성 비경제활동인구 중 67.4%에 해당하는 7,065천명이 가사와 육아 때문에 경제활동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9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여성이 비경제활동을 하는 이유 중 가사와 육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52%와 20%로 지난 10년간 거의 변하지 않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결국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할 수 있는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에 상당수 여성이 가사와 육아 부담 때문에 경제활동을 포기하고 40대에 하향된 근로조건으로 재취업하는 M커브 현상과, 고학력 여성이 경력단절 후 재취업을 포기하는 L커브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역 U자형을 보이는 선진국과 다른 양상을 띠는 것으로 자녀양육과 가사부담을 완화시키고 여성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일과 가정의 두 측면에서 정책이 효율적으로 병행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김중숙 외, 2010). 특히 미취학 자녀를 둔 여성이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데 가장 어려움을 겪기는 하지만 양육의 어려움은 자녀가 초등학교 졸업 때까지도 해소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미취학 아동에 집중되어 있는 보육정책 개선의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

1991년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된 이후 우리나라 보육정책은 국가의 주요 정책 영역으로 설정되어

보육정책 예산이 획기적으로 증대되고 보육시설이 확충되는 등 많은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영아보육시설이 수요에 비해 매우 부족하고, 보육정책이 저소득층 위주로 추진되는 등 모든 가족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보육정책은 아직 마련되지 않고 있다(장혜경 외, 2008). 특히 저출산·고령화의 심화, 가족형태의 다양화 등 사회가 급속하게 변화하는 것과 더불어 고용불안정의 증가, 근무시간의 다양화 등 노동시장 환경의 변화로 인해 기존 보육시설 중심의 보육정책에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즉 임시직이나 일용직의 증가로 시간 연장이나 시간제 보육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야근이나, 출장, 회식, 병원치료, 경조사와 같이 긴급하고 일시적인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자주 발생하면서 기존 시설보육으로는 돌봄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발맞춰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이 2006년 시범사업 후, 2007년부터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다. 2010년 아이돌보미 사업실적보고에 의하면 아이돌보미서비스 이용자가정의 가족유형은 맞벌이 가족이 전체의 42.7%로 가장 많았으며, 이용자가정 아동의 연령은 6-8세 아동이 21.5%로 가장 많았다(이승미, 김선미, 2011). 아이돌보미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장 큰 사유로 맞벌이 가족과 한부모 가족은 ‘보육시설시간 외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라고 답하였는데, 이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간대가 오후 4시부터 8시까지에 집중되어 있고 새벽 4시부터 오전 8시 사이에 이용신청이 증가하는 것으로 증명되고 있다(이승미, 김선미, 2011). 따라서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가족의 아동양육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변미희 외, 2007; 전병힐, 2009; 전춘애 외, 2009).

그러나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에 대한 긍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이용자나, 센터 종사자, 아이돌보미 등의 활동을 통하여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을 평가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즉 이용자가 가정의 수치가 얼마 증가하였고, 주로 어떠한 가정이 이용을 하고 있으며, 이용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인 방안은 무엇인가 등 제도 개선을 위하여 주로 양적인 수치에 근거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을 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에 관여하고 있는 당사자들의 활동을 통한 평가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양적인 평가는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발달시키고자 하는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에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고 할 수 없는데, 왜냐하면 돌봄이란 구체적으로 사람간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이 상호작용의 양상과 본질에 의해 돌봄의 질이 결정되며 양질의 돌봄이 제공되었을 때 진정으로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이 발달의 결정적 시기인 영유아기와 아동기의 아이들을 위해 제공되고 있는 만큼 돌봄의 질에 초점을 두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이용자나, 센터 종사자, 아이돌보미 등의 활동을 질적 연구방법을 통해 평가함으로써 돌봄의 양상과 본질을 파악하고 돌봄의 질을 개선함으로써 양질의 돌봄을 제공할 필요성에 의해 제기되었다. 이러한 필요성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우선적으로 직접 아이를 돌보는 당사자인 아이돌보미의 활동을 통해 돌봄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문제점이 무엇이며 개선 방안으로 어떠한 것이 있는지 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즉 본 연구는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자체에 초점을 두면서 사업의 활성화와 개선 방안에 중점을 두었던 선행 연구들과 다르게 사업에 참여

하고 있는 아이돌보미의 활동을 통해 돌봄의 본질과 양상을 파악하고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함으로써 돌봄의 질을 개선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아이돌보미의 관점과 입장에서 아이돌보미 활동을 평가하고, 그러한 평가에 근거하여 돌봄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돌봄 노동

Daly(2000)는 돌봄 노동을 병자나 노인, 어린 자녀들과 같이 스스로 자신을 돌볼 수 없는 사람을 돌보는 행위라고 정의하였다. 특히 돌봄 노동은 여타의 노동과 다르게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행위 자체보다 관계가 중요시되는 측면을 가지고 있으며, 관계에 의해 발생하는 감정적 스트레스 등 정서적인 요소와 윤리적인 문제까지를 포함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돌봄 노동은 미시적으로는 개인적 관계로 보이지만, 거시적으로는 가족과 사회, 개인과 사회를 연결하는 사회적 관계로서 사회구성원들의 유지 및 재생산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회적 활동이다(장혜경 외, 2005). 다시 말해 사회적 활동으로서 돌봄 노동은 국가와 사회를 연결하는 핵심적인 활동이며, 그 사회구성원 모두의 책임과 사회적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더 나아가 사회적 활동으로서 돌봄 노동은 사회구성원의 인식 전환과 더불어 국가와 사회가 돌봄의 책임을 공유하면서 다양한 제도와 정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허라금, 2006). 이는 이제까지 가족이라는 사적 영역에 국한하여 돌봄 노동에 대한 책임을 부과했던 관행과 고정관념을 부수고, 돌봄 노동을 공적 영역으로 확대하여 개별 가족만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 가족 모두가

공동으로 돌봄 노동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인식이 바뀌어야함을 의미한다(허선미, 2009). 또한 돌봄 노동이 전통적으로 결혼과 친족이라는 사회관계에서 주로 여성들이 수행하는 것으로 인식됨으로써 돌봄 노동의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은 채 의무나 헌신, 신뢰, 충성 등이 강조되었던 점이 개선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즉 자녀 양육의 돌봄 노동은 궁극적으로 세대적 재생산노동으로서 사회 유지를 위해 필수적임을 사회구성원 모두가 인식하고, 돌봄 노동에 대한 가치를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의 마련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Folbre(2001)는 표준화되거나 객관화될 수 없으며 일대일의 접촉과 개인별 맞춤 지식을 요구하는 것으로 돌봄 노동을 정의하고 있다. 특히 Folbre(2001)는 일대일의 관계로 이루어지는 돌봄 노동은 정서적인 요소를 포함하기 때문에 그 상호작용의 질이 매우 다양하며, 그렇기 때문에 질을 측정하기가 아주 어려움을 강조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아이를 돌보는 과정에서 꾸지람이 필요하고 이러한 꾸지람을 아이는 혼내는 것으로 받아들이며 돌봄을 거부할 수도 있고 그럼으로써 질이 떨어지는 돌봄으로 평가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돌봄 노동의 질은 단기간의 가시적인 성과에 의해서만 판단될 수 없으며, “진정으로 시장에서 충분히 보상되지 않는 사랑, 의무, 호혜라는 문화가치”에 달려 있기 때문에 평가하기가 어렵다(Folbre, 2001: 90). Graham(1983) 역시 돌봄 노동에서 나타나는 사랑과 친밀성이라는 심리적 차원을 강조하면서, 의무와 책임을 강제하지 않는 감정적 관계를 포함하는 행위로 돌봄 노동을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조한혜정(2006)은 헌신과 애정이 개입되는 돌봄 노동을 제대로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자본주의 체제에 존재하지 않음을 지적하고 있다.

결국 돌봄 노동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의무와 책임이라는 윤리적 측면을 포함하는 감정적이며

신체적인 행위로 요약될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돌봄에 대한 욕구와 돌봄을 통해 자아실현의 기회를 가진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돌봄 노동은 의무만이 아니라 권리이기도 하다(이재인, 2006). 따라서 남녀 모두가 돌봄 제공자로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구축되어야 하며, 이러한 환경의 구축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부모권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공보육서비스의 확대와 육아휴직제도의 정착은 부모권의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사회적 환경의 한 예라고 할 수 있다. 돌봄 노동은 제공 형태에 따라 공식적과 비공식적 노동, 또는 유급과 무급 노동으로 나뉜다(장혜경 외, 2005). 돌봄 노동이 어디에서 수행되는가에 따라 공식과 비공식으로 구분되며, 노동시장과 공공부문이 공식영역에, 가족이나 사회적 관계와 같이 전통적으로 수행되어 왔던 연결망들이 비공식영역에 해당된다. 또한 돌봄 노동 제공자가 현금을 지급받는지에 따라 유급과 무급 노동으로 나뉘며, 노동시장이나 공공부문과 같은 공식영역에서 돌봄 노동은 상품성을 띠게 되고 유급의 노동이 된다. 전문 보육교사나 전문 간병인은 공식영역에서 유급으로 일하는 돌봄 제공자로서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전문직업인이라고 할 수 있다.

2. 아동 돌봄

돌봄 노동이 사회적 활동으로서 인식되고 정착되기 위한 다양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 양육의 돌봄 노동은 여전히 개별 가족의 책임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여성은 취업 여부와 상관없이 자녀 양육의 책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장혜경 외, 2005). 또한 여성이 취업한 경우에도 자녀 양육은 사회적 지원체계에 의존하기보다는 부모나 형제자매 등 비공식적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그만큼 사회적 지원체계가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

고 있다. 실제로 한국 사회에서 아동 돌봄은 영아기에는 주로 어머니가, 유아기에는 보육시설 또는 유치원에서, 학령기에는 각종 학원을 다니거나 보호자 없이 방치되는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사회적 지원체계의 빈약함을 보여주고 있다(김승권 외, 2006; 서문희 외, 2009). 아동 돌봄에 대한 사회적 지원체계의 부족은 세대적 재생산이 안정적으로 제도화되지 않았다는 것과 부모권이 실현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않음으로 인해 남녀 모두가 어머니 노릇을 제대로 수행하기 힘들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또한 일-가정 양립의 사회적 풍토가 마련되지 않았음을 가리키고 있으며, 이러한 풍토에서 여성들이 출산을 포기하거나 미루면서 한국 사회의 유지와 발전에 심각하고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아동 돌봄에 대한 사회적 지원체계 확대의 필요성은 많은 선행 연구들의 결과에서도 나타나고 있다(서문희 외, 2009; 이혜운, 2008; 장혜경 외, 2008; 현진권, 2004). 예를 들어, 서문희, 김은설, 최진, 안재진, 최혜선, 김유경과 조애저(2009)의 연구에서 0세 영아는 조부모 등 비공식영역에서 돌봄을 받는 비율이 31.3%로 보육시설 이용률 8%보다 높게 보고되고 있다. 취학 아동을 방과 후에 주로 돌보는 사람은 어머니가 53.4%, 형제 자매가 11.6%, 돌보는 사람 없이 혼자 지낸다는 비율도 8.6%로 나타나 많은 수의 아동이 사회적 지원체계에서 벗어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상당수의 가구가 비용부담 때문에 저렴한 비용으로 조부모 등 혈연에게 자녀를 맡기거나 방과후 보육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유아의 자녀를 둔 가구의 36.7%가 보육시설의 부족을 20.8%가 자녀를 보낼만한 곳이 없다고 답하였다. 이는 자녀 양육을 경험하고 있는 모든 가구가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돌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아동 돌봄에 대한 사회적 지원체계가 급속하게 확대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맞벌이 가족의 증가와 핵가족화, 이웃과의 관계 단절 등 사회구조가 급속히 변화하면서 비공식영역에서 아동이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으며, 기존의 시설보육 중심의 사회적 지원체계로는 다양한 돌봄의 욕구가 만족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변미희 외, 2007). 즉 부모의 질병이나 야근 등 긴급하고 일시적인 돌봄의 수요를 지원하고, 임시직이나 일용직에 근무하는 부모의 시간제 보육이나 보육 시설시간 외 돌봄에 대한 욕구 등을 만족시켜줄 수 있는 사회적 지원체계의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의 경우, 이러한 아동 돌봄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시설보육의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함으로써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는 사회적 지원체계의 한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승미와 김선미(2011)가 지적하고 있듯이 아이돌보미를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됨으로써 아동이 충분히 돌봄을 받지 못하고 방치되거나 부모가 다른 돌봄 형태의 이용에 추가로 비용을 지불하는 등 아동에게 안정적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서 많은 부분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아동 돌봄은 사회적 지원체계의 확대로 가족의 양육부담을 경감시키고 부모권을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과 아동의 안전과 발달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양질의 돌봄을 제공하는 것으로 해결될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영유아기 아동에 집중되어 있는 돌봄에 대한 지원과 관심이 학령기 아동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는데, 왜냐하면 학령기 아동 역시 스스로 자신을 돌볼 수 없는 아동으로 성인의 안전한 보호와 지도를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또한 학령기는 정서와 사회성 발달, 성역할 인식 및 타인과의 관계형성을 통해 대인관계 기술이 발달하는 최적기로서 건전한 성인으로 성장하기 위해 안전한 보호와 지도가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시기이다(신재명, 2006). 따라서 아동의 전인적 성장을 위해 영유아기 뿐만 아니

라 학령기에도 실질적으로 양질의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아동 돌봄을 사회구성원 전체의 책임과 의무로 생각하는 인식의 전환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 참여자

연구 참여자는 서울, 광주, 완주, 화순, 대구 등 5개 지역의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에 소속되어 아이돌보미로 활동하고 있는 13명으로, 1년 이상 아이돌보미 활동을 지속

적으로 수행하고 있었다.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의 다양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고자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그리고 군 단위의 아이돌보미가 골고루 포함되도록 하였다. 광주와 대구는 전라권과 경상권을 대표하는 광역시로, 완주와 화순은 군 단위를 대표하는 지역으로 선정하였다. 연구자는 직접 5개 지역의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을 방문하여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을 설명한 후 관리자로부터 1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아이돌보미를 추천받았으며, 추천받은 아이돌보미 중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에 동의하고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13명만이 참여 동의서에 서명한 후 연구에 참여하였다.

〈표 1〉 연구 참여자 특성

참여자	지역	소속	나이	아이돌보미 경력	아이돌보미 활동을 시작하게 된 이유
A	전북 완주군	아이돌보미 사업단	37	3년	경제적 이유, 아이돌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B	전북 완주군	아이돌보미 사업단	36	2년	경제적 이유, 혼자서 생계를 책임져야 할 형편이어서
C	전남 화순군	온누리 가정지원센터	40	2년	경제적 이유, 내 일을 가지고 싶어서
D	광주광역시	건강가정지원센터	45	3년	아이들이 좋아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동생을 도와주고 싶어서
E	전남 화순군	온누리 가정지원센터	43	2년	경제적 이유
F	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센터	54	2년	아이들이 좋아서, 아이들을 위해 봉사하고 싶어서
G	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센터	54	3년	전업주부를 벗어나 사회생활을 해보고 싶어서
H	전남 화순군	온누리 가정지원센터	43	2년	아이들을 위해 봉사하고 싶어서
I	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센터	51	3년	경제적 이유, 다른 아이돌보미들이 기쁘게 일하는 것이 좋아보여서
J	전남 화순군	온누리 가정지원센터	39	1년	아이들이 좋아서
K	대구광역시	건강가정지원센터	44	3년	경제적 이유
L	전북 완주군	아이돌보미 사업단	38	2년	아이들이 좋아서, 주위의 권유에 의해서
M	전남 화순군	온누리 가정지원센터	43	2년	아이들이 좋아서

<표 1>은 연구에 참여한 아이돌보미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생계에 보탬이 되고 봉사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이돌보미를 시작하게 된 경우가 많았으며, 시 지역보다 군 지역에서 활동하는 아이돌보미의 나이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자료 수집

자료는 2010년 10월부터 12월까지 총 3개월 기간 동안 연구에 참여한 13명을 대상으로 한 심층 면접을 통하여 수집되었다. 심층 면접은 비구조화된 질문을 이용하여 실시되었으며, 아이돌보미들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면접에 임할 수 있도록 연구자가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면접을 실시하였다. 심층 면접은 연구 참여자 당 1회 실시되었으며, 1시간 30여분 정도 소요되었다.

조사 도구로는 비구조화된 질문이 사용되었다. 비구조화된 질문을 이용한 심층 면접은 면담자가 알고 싶은 주제에 대하여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피면담자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경험을 하였는지를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다(김영천, 2010: 264). 그러나 심층 면접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면담자의 대화능력과 다양한 인간관계기술, 추론력이 많이 요구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고자 심층 면접이 실시되기 전에 연구자가 알고 싶은 주제를 명확히 하고 숙지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심층 면접이 이루어지는 동안 연구 참여자들의 이야기가 풍부하게 전개될 수 있도록 자유스러운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였다. 심층 면접에 사용된 비구조화된 질문은 주로 아이돌보미 활동을 시작하게 된 이유, 주요 활동의 내용, 활동을 하면서 겪는 어려움,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 아이돌보미 활동에 대한 생각 등을 포함하였다. 모든 면접 자료는 연구 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녹음되었으며, 면접이 끝난 후

바로 전사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심층 면접을 통하여 아이돌보미가 경험하는 아이돌보미 활동의 구체적인 내용과 더불어 아이돌보미의 관점과 입장에서 바라보는 아이돌보미 활동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조사하였다. 즉 아이돌보미가 관리자나 부모, 아이와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 아이돌보미가 아이와 함께 하는 활동의 구체적 내용과 부모나 관리자의 요구에 대응하는 방식 등에 대한 질문을 포함하였다. 또한 아이돌보미 활동에서 나타나는 어려운 점은 무엇이고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지, 아이돌보미 활동을 통해서 느끼는 보람과 갈등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3. 자료 분석

본 연구는 Gee(2005/1999)의 담화 분석(Discourse Analysis) 방법을 사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Gee(2005/1999)의 담화 분석 방법은 문맥에서 낱말의 언어, 그리고 낱말의 언어에서 문맥으로 이동하면서 자료에 대한 가설들을 명확히 하는 방법이다. Gee(2005/1999: 13)는 이러한 가설들이 향후의 좀 더 많은 자료를 통한 탐구에 의해 확인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즉 “사용되고 있는 낱말의 언어가 문맥 속에서 나타내는 정보”를 통해 “낱말의 언어가 무엇을 의미하고 무엇을 시도하는지”에 관한 가설들이 창조되고, 문맥이 어떻게 사람들에 의해 해석되는가에 관한 정보가 탐구되는 것이다(Gee, 2005/1999: 14). 본 연구가 Gee(2005/1999)의 담화 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자료를 분석한 이유는 연구 참여자들이 아이돌보미 활동을 하면서 부딪치는 구체적인 상황에서 사용하는 낱말의 언어가 무엇을 의미하고 어떻게 해석되는가에 관한 정보를 탐구하여 아이돌보미 활동을 평가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Gee(2005/1999)의 담화 분석 방법에 근거하여,

연구자는 먼저 심층 면접 자료들을 “단일한 주제, 사건, 영상, 관점, 또는 화제로 귀결되는 행의 묶음”을 의미하는 수많은 절(stanza)로 나누었다 (Gee, 2005/1999: 127). 다음으로 몇 개의 절(stanza)을 묶어 이야기(story)들을 만들었다. 끝으로 일곱 개의 기본 과업(building task)들 - 중요성(significance), 활동(activities), 정체성(identities), 관계(relationships), 정치(politics), 맥락(connections), 신호 체계와 지식(sign systems and knowledge) - 을 완성하였다. 일곱 개의 기본 과업들은 일곱 개의 “진실”을 의미하며, 우리가 말하고 쓸 때마다 항상 일곱 개의 “진실”을 구축하고 있다는 사실에 기반하고 있다(Gee, 2005/1999: 11). 예를 들면, 우리는 개별 활동에 관여하고 활동에서 사용되는 몇 마디의 언어를 통해 우리의 참여를 인지한다. 그 몇 마디의 언어가 활동에서 어떻게, 무엇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지를 질문하는 것에 의해 우리는 활동 속에 담겨있는 언어가 적극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진실을 탐구할 수 있다. 따라서 언어를 연구하는 것은 언어를 통해 구축된 다양한 정체성과 활동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사회적 지위와 상품들과 연관된 사람들의 다양한 접근성까지 탐구하는 것에 의해 진실을 찾는 것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연구자는 13명 연구 참여자 각각의 절(stanza)과 이야기(story), 일곱 개의 기본 과업(building task)들을 완성하는 것에 의해 심층 면접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자는 13명 연구 참여자의 자료를 분석한 후, 연구의 내적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자료와 잠정적인 해석을 자료를 제공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해석이 타당한지를 물어보는 절차인 ‘연구 참여자 점검(member checks)’(Merriam, 1998: 204)을 실시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내적타당도 뿐만 아니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삼각측정(triangulation)을 실시하였는데, 특히 두 사람 이상의 연구자가 함께 연구에 참여하고 수집한 자료들을 분석하는 ‘연구자의 통합’을 사용하여 연

구 참여자에 대한 탐색과 이해의 정확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잠정적인 결과를 동료에게 보여주고 비평을 참조하는 ‘동료 검증(peer debriefing)’(Lincoln & Guba, 1985: 243)을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실시하여 연구자의 주관적 해석으로 인한 여러 오류를 수정하였다. 예를 들어, 연구자가 서술적으로 자료 분석 결과를 정리하여 독자들의 이해를 어렵게 한 것에 대해 전문가가 문제 제기를 하였고, 이러한 문제 제기를 수용하여 연구자는 주제어를 포기하고 이를 중심으로 내용을 다시 정리하였다.

IV. 연구 결과

1. 자료 분석의 예

다음은 13명 연구 참여자들 중 11번째 연구 참여자 K의 자료를 Gee(2005/1999)의 담화 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한 예로, 절(stanza)과 이야기(story), 일곱 개의 기본 과업(building task)들을 보여주고 있다. 13명 연구 참여자들 중 연구 참여자 K의 자료를 제시하는 것은 K의 자료가 아이돌보미 활동의 구체적인 내용, 문제점, 개선 방안 등에 대해 가장 풍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1) 절(stanza)과 이야기(story)의 예

Sub-story 1: 이동 시간을 고려하지 않은 급여 체계

Sub-sub-story 1: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가정을 방문

Stanza 1: 먼 거리 가정을 방문함

1. 가는데 뭐 한 30, 40분,
2.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가정 있거든요.
3. 딱 2시간만 쓰는 거예요,
4. 저녁시간을.

- Stanza 2: 대중교통이 안 좋음
5. 병이 났어요.
 6. 제가 도저히 안 되겠더라
고요.
 7. 근데 거기는 대중교통도
잘 이용할 수 없는 데 인
거예요.
- Stanza 3: 버스가 일찍 끊김
8. 네, 이제 환승을 하는데,
 9. 환승도 차가 한군데 뺑
비면
 10. 그 집에 지각을 하고
 11. 시골이다 보니까
 12. 9시 넘으면 버스가 끊어
져요.
- Stanza 4: 버스가 없어서 걸어서 옴
13. 활동을 끝내고
 14. 집에 오려고 하면
 15. 버스가 없어요.
 16. 그러면 이제 한 시간을
 17. 걸어서 와야 돼요, 집을.
- Stanza 5: 먼 거리도 원하면 가야 함
18. 예. 그런데도 이제
 19. 그 집에서는
 20. 이런 얘기를 안 하면
 21. 모르시잖아요.
 22. 당연히 이런 제도가 있
으니까
 23. 사용하는 거고
 24. 또 우리 돌보미 선생님
들은 가줘야 되는 거고
- Sub-sub-story 2: 급여 체계 개선 필요
- Stanza 6: 시간이나 비용 조정이 필요함
25. 예, 그런 가정은...
 26. 일단 시간,
 27. 사실 2시간 하면 짧더라
고요.
28. 가는데 힘들게 갔는데
 29. 가서 좀 숨 돌리고
 30. 얘기하고 뭐하고 하면
 31. 또 와야 되거든요.
 32. 2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33. 그래서 이런 가정은
 34. 조금만 더 시간을 늘려
준다거나
 35. 아니면 뭐 사설
 36. 이렇게 시간당 5000원이
라고 하면
 37. 옛날에 최저임금이 3600
원 할 때는
 38. 이게 되게 큰 돈 이었는
데...
- Stanza 7: 임금 조정이 되지 않고 있음
39. 안 올라가져요,
 40. 지금 4600원대로.
- Stanza 8: 긴장 상태가 지속되는 노동임
41. 근데 저희들도 아이돌보
는 게
 42. 이게 노인하고 아이들하
고
 43. 연대만 틀릴 뿐이지
 44. 애네들한테 신경이나
 45. 눈 주시하고 있어야 되고
 46. 혹시라도 사고라도 나지
않을까
 47. 늘 긴장상태기 때문에
 48. 갔다 오면 저 같은 경우
는 막...
- Stanza 9: 입 안이 험 정도로 노동 강
도가 심함
49. 녹초라기보다
 50. 저는 정신적으로는 괜찮
은데
 51. 잇몸이 부어요.

52. 그 만큼 힘이 든다는 애
기죠.
53. 그 정도로다가 온 전심
전력을
54. 애네들한테 쏟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55. 몸이 피진다는 거거든요.
- Stanza 10: 다른 직종에 비해 급여가
낮음
56. 그거에 비해서
57. 이용자 가정에서는
58. 시간당 5천원이 크다는
생각도 들지만
59. 또 요양보호사나 이런
데서는
60. 6500원에서 7000원까지
하는 데가 있잖아요.
- Stanza 11: 기본 이용 시간 연장 필요함
- 61: 이게 만약에 시급을 좀
더 올리거나
- 62: 시간이 조금 더 기본 2
시간이 아니라
- 63: 3시간으로라도 해 주신
다면.
- 64: 네. 2시간하고 3시간은
또 틀리거든요.
- 65: 그래서 지난번에 그 집
에 갔을 때도
- 66: 2시간씩하고 오다 보면
- 67: 나중에 어지럼증이 생겨요
- End of story: 이동 시간과 노동 강도를 고려
하여 급여 체계 개선이 필요함

2) 일곱 개 기본 과업(building task)의 예

(1) 중요성(significance)

중요성은 상황에서 중요하게 보이는 단어나

어절이 가지는 의미를 가리킨다. 참여자 K의 면
접 자료에서 중요하게 보이는 단어는 ‘보수’라는
단어였는데, 이 ‘보수’라는 단어는 상황에 따라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첫 번째, ‘보수’라는
단어는 총 급여로서 생계유지를 위해 필요한 적
정 금액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런 얘기는 들은 적은 없는데요. 어쨌든 여
기서 보수가 안 되니까 여기 처음 양성교육을 받
았던 선생님들이 40 몇 명으로 된 걸로 알고 있
거든요. 근데 제가 활동을 하다가 버스를 만나거
나 어디서 만났을 때 근황을 여쭙으면 다들 그만
뒀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다른 거보다도 그 대신에 그런 거
는 있을 것 같아요. 기본급이라든가 4대보험이라
든가 활동하는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보수가 안
정권에 들면 그 다음에 우리가 선별해서 갈 수
있는 건 없어도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보수’라는 단어는 금전적인 의미로
단순히 돈을 가리키고 있었다.

“네. 저도 얘기하고 맞는 거 보고 가잖아요.
제가 물론 보수가 필요하지만 아이들하고 안 맞
는다하면 사실 시간이 안가요. 그런 것 없이 좋
다하면 시간이 언제 갔는지 모르게 팍팍 가는 거
예요.”

“그랬는데 우리 자신들의 삶은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사실 뚜껑을 열어보면 보수,
우리도 사실 이렇게 가정 힘들어서 나온 거잖아
요.”

세 번째, ‘보수’의 사전적 의미인 노력의 대가
를 말하는 경우로, 아이를 돌보는 데 기울인 노
력에 대한 대가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래서 제가 돈을 번다라기보다는 같이 얘기
를 보면서 노니까 놀면서 그 보수는 따라 온다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즐거워요.”

“옛날에는 돈이 우선이었는데 물론 지금도 월
급 받아보면 없으면 허탈해요. 그니까 가치성이
있는 것만큼 돈의 보수도 따라줘야 된다는 생각

이 드는 거예요. 그니까 이게 딱 두드러진다고 보면 병적인 거겠지만 애네들을 보면서 이거를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 그 대신에 한 달의 결과가 돈으로도 이어질 때는 뿌듯하게.”

(2) 활동(activities)

참여자들이 관여하고 있는 특별한 사회적 활동을 구성하고 있는 일련의 활동들을 의미한다. 참여자 K가 관여하고 있는 특별한 사회적 활동은 아이를 돌보는 것이며, 이를 구성하는 일련의 활동들은 놀이를 통해 시간을 보내는 것과 아이의 글자 공부 도와주는 것, 숙제를 봐주는 것 등이다. 특히 참여자 K는 놀이를 통해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이는 참여자 K가 요즘 아이들의 놀이 부족에 대해 심각성을 느끼면서 의도적으로 행하는 것이었다.

“그니까 요즘 애들은 어린이집이나 학원에서 글씨를 다 배우잖아요. 근데 제가 있으면서 글자까지도, 물론 숙제가 있으면 해 주고 하지만은 주로 놀이 같은 거. 요즘 아이들 놀이가 약간 부족하잖아요. 네. 그래 가지고 놀이를 통해서 같이 시간을 보내고.”

“그래서 이제 같이 노래도 부르고 잠자리도 보러가고 또 그 옆에 강이 있거든요. 예. 강가가 있으니까 공기도 좋고요. 그래서 자전거 타고 걸리고 막내는 업고.”

다음으로 참여자 K가 행하는 활동은 집안 일이 있는데, 이는 아이와 시간을 보내다보면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식사와 설거지 같은 것을 포함하고 있었다. 그러나 원래 가사 활동은 아이돌보미의 의무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아이돌보미를 이용하는 가정이 아이돌보미에게 절대 가사 활동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아이와 시간을 보내다보면 식사나 간식을 챙겨준 후 설거지를 하게 되거나, 아이와 놀아준 후에 책이나 장난감을 치우는 등의 가사 활동을 수행하고 있었다.

“그런 분들은 이미 센터에서 가사 일은 제외되고 그런 걸 이미 얘기해 났기 때문에 요구하시는 분들은 없었어요. 아직까지. 근데 제가 1년 반 넘게 가는 집은 이미 거의 저하고 제가 가는 한은 저하고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식사하고 이런 거는 제가 설거지 같은 건 해 놓고 같이 놀았을 때 집안이 어지러워졌다 할 때는 치워놓고.”

(3) 정체성(identities)

정체성은 하나의 요소로서 정체성을 포함하는 상황이나 상황에 연관된 사람들이 필연적으로 규정하고 인지하는 것을 일컫는다. 아이돌보미로서 참여자 K의 정체성을 포함하는 상황은 한부모 가정이나 맞벌이 가정과 같이 엄마의 손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가정에서 아이를 돌볼 때이다. 특히 참여자 K는 부모가 바깥에서 일을 하는 동안 부모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것을 아이돌보미의 역할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한부모 가정이나 맞벌이 가정과 같이 부모의 빈자리가 큰 가정에서 아이를 돌볼 때 아이돌보미의 정체성을 많이 느끼고 있었다. 한부모 가정이나 맞벌이 가정은 부모가 장시간 바깥에서 일하고 퇴근 후에도 일의 고단함으로 아이와 전적으로 시간을 보낼 수 없는 경우로서 아이가 부모와 지내는 시간이 다른 가정에 비해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그러므로 아이돌보미가 부모를 대신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주어지고 역할과 책임이 크게 느껴지는 한부모 가정이나 맞벌이 가정에서 아이를 돌볼 때 참여자 K는 아이돌보미의 정체성을 인지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 아이돌보미 자체가 주로 부모님들이 바깥에 일을 하고 아이를 우리에게 전적으로 맡겨졌을 때 우리가 아이들에게 할 수 있는, 최대한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저는 이제 제가 선호하는 가정은요. 그래도 막 엄마, 아빠가 다 있으면서 부유하게 재력이

있으면서 아이를 보육교사 하나 지정해서 쓴다하는 가정보다는 정말 필요한, 나를 필요로 하는 가정.”

“글쎄요. 마음이 가서 그런지 가형 같은 데는 어떻게 보면 한부모 가정이라든가, 맞벌이라든가 정말 엄마 손이 부족해서 애네들이 충분히 못 받는 그런 거 있을 때.”

그러나 참여자 K는 아이돌보미의 불안정한 지위와 부당한 처우 때문에 아이돌보미 활동에 회의를 느끼면서 아이돌보미라는 자신의 정체성에 혼란을 겪고 있었다. 즉 아이돌보미의 정신적, 육체적, 감정적 노동에 비해 낮은 보수와 이동 시간을 고려하지 않는 시간 당 급여라는 불합리한 부분이 많이 제기되면서 아이를 돌보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특히 참여자 K는 자신을 일용노동자로 치부할 만큼 정체성 혼란을 심하게 겪고 있었다. 왜냐하면 일감이 불규칙하게 제공되고 기본 급여가 보장되지 않아 생계 보장이 되지 않음으로써 아이를 돌보는 사람인지, 아니면 단지 그날 주어지는 일감을 기다리는 사람인지 의심스럽기 때문이다.

“저희는 신뢰되는 것만큼 저희들 이게 금전적으로 보면 일용 근로자예요. 왔다가 일 없으면 그만 뒤도 이 어떠한 조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4대 보험이나 퇴직금이나 기본급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보장되지 않고 우리가 발로 뛰어서 활동한 그 금액만 받고 얼마가 되든간에 적든지 많든지 그것만 받고, 투잡을 해도 투잡하다가 더 좋은 데 있으면 가라 이렇게도 센터나 정부에서는 어떠한 것에 대해서 ...”

“그랬는데 우리 자신들의 삶은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사실 뚜껑을 열어보면 보수, 우리도 사실 이렇게 가정 힘들어서 나온 거잖아요. 그 아이돌보미 가정만 어려운 게 아니라. 그러면 저희들도 어떠한 금전적인 문제가 안정적으로 기반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런 활동을 하게 된다면 더 긍지도 가질 수 있게 되고요. 우리

들 마음가짐이 우리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텐데.”

(4) 관계(relationships)

구성요소로서 관계를 포함하는 상황이나 상황에서 연관되고 당연하게 보이는 사회적 관계들을 말한다. 참여자 K가 맺고 있는 사회적 관계들은 아이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다른 아이돌보미와의 관계, 센터 종사자와의 관계 등이 있다. 이 중에서 참여자 K의 주된 사회적 관계는 아이와의 관계로서 처음에 어색함을 깨는데 일정 시간이 걸리지만 서로의 특성을 파악하고 익숙해진 다음에는 부모만큼 가까운 관계가 되고 있었다. 또한 종종 가족과 함께 있을 때 아이가 참여자 K보다 가족을 더 찾을 때는 서운함을 느낄 정도로 참여자 K는 아이를 친자녀처럼 돌보고 있었으며, 만남을 통해서 기쁨을 주고 아이가 부모와의 어른에게서 사랑을 배울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아이와의 관계를 맺고 있었다.

“맨 처음 애네들하고 맞추기가, 애네들도 나를 좀 어색해 했지만 지금은 1년이 지나고 나니깐요. 엄마하고 헤어질 때도 빨리 엄마 가래요.”

“그런데 부모님이 계시면서 우리를 불렀을 때, 나한테 맡겼는데 그 아이가 나한테 안 오고 할머니한테 가잖아요. 그럴 때가 힘들죠.”

“어쨌든 이게 엄마나 아빠 아닌 사람에게서도 사랑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걸 전달을 하니까 애기들이 다 예뻐요.”

“애네들한테 꿈과 희망과 나를 통해서 얻는 기쁨과 나를 만나면서 얻는 즐거움 같은 거”

다음으로 참여자 K가 주되게 맺는 사회적 관계는 부모와의 관계로서 아이와의 관계를 통해 부모가 신뢰를 갖게 되고 그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장기적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다. 특히 아이돌보미에 대한 부모의 신뢰는 아이돌보미 활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데, 왜냐하면 부모가 아이들

보미와 아이의 활동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신뢰가 없다면 아이를 맡길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부모와의 관계는 참여자 K가 아이와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함으로써 아이와 참여자 K 모두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전 아무 말 없이 얘기들하고 놀고만 오는데도 그다음에 엄마들이 저를 또 찾아주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런 면이 고맙죠.”

“이런 식이니까. 이 어머니는 맨 처음에 가니까 그러더라고요. ‘아, 아이돌보미 있으니까 너무 좋다고.’ 노래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도 어느 정도 서류를 내면서까지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만큼 신뢰를 하니까 자기 아이들 좀 더 잘 봐주겠지 하는 기대감 때문에 맡기시는 것 같아요. 저희들도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가서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참여자 K가 맺는 또 다른 사회적 관계는 다른 아이돌보미와의 관계로서 참여자 K가 겪는 정체성 혼란이나 아이돌보미 활동에서 제기되는 여러 문제들을 함께 공유하고 있었다. 참여자 K와 마찬가지로 다른 아이돌보미들 역시 경제적 이유로 아이돌보미 활동을 시작하였으나 기대에 못 미치는 보수와 처우 때문에 아이돌보미를 그만 둔 경우가 많았다. 또한 현재 아이돌보미 활동을 하고 있더라도 그것의 지속 여부에 대해 확신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참여자 K는 이러한 실정을 간과한 채 정부에서는 모자란 아이돌보미 인원을 채우기 위해 양성교육을 반복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랬는데 우리 자신들의 삶은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사실 뚜껑을 열어보면 보수, 우리도 사실 이렇게 가정 힘들어서 나온 거잖아요.”

“저희들 생활이 금전적으로다가 너무 힘들다 하면 갈팡질팡하거든요. 이 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나는 이 일이 좋은 데 또 다른 일을 찾아

야 되나.”

“어쨌든 여기서 보수가 안 되니까 여기 처음 양성교육을 받았던 선생님들이 40 몇 명으로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활동을 하다가 버스를 만나거나 어디서 만났을 때 근황을 여쭙보면 다들 그만 났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맨 처음에 상황에서는 ‘시급 5천원이면 괜찮네.’ 이렇게 했다가 실전에서는 그게 안 되니까, 수입이 안 되니까, 다른 걸 생각하고 다른 길로 가시고.”

“그니까 지금 선생님들이 다 빠져나간 상태에서 또 다른 새로운 양성교육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선생님들을 추가 모집을 한다. 그러면 또다시 그런 선생님들이 또다시 빠져나간다는 얘기죠.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겠죠?”

마지막으로 참여자 K가 맺는 사회적 관계로 센터 종사자와의 관계가 있는데, 이는 참여자 K가 종속관계로 표현할 만큼 정부의 정책과 방향을 대변하고 있는 센터 종사자와 아이돌보미 사이의 갈등을 보여주고 있었다. 즉 센터에서 이용자 가정 선정, 이용자가정과 아이돌보미 연결, 아이돌보미의 시간 배정 등 아이돌보미 사업과 관련한 제반 업무를 맡으면서 아이돌보미가 센터 종사자의 판단과 결정을 따르는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경력이 쌓인 이후에는 아이돌보미가 단지 배정된 가정을 가기보다 가정의 성격을 파악한 후 선택을 하기도 하는 등 아이돌보미와 센터 종사자와의 관계에 약간의 변화가 보이기도 하였다.

“센터에서 ‘어디 가십시오.’ 하면 의무화가 돼... 의무적으로다가. 그렇죠. 매이게 된다고 할까요?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종속관계라고 해야 되나?”

“제가 하고자 한다고 해서 많이 버는 게 아니고 주어지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우리가 알바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을 선별해서 ‘이 가정 가실래요?’ 그

려면 이렇게 보고 ‘누구, 누구 있는데요? 할머니, 할아버지 계신가요?’하고 물어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직업적이라는 것이 있는가 하면 지금은 약간 자유롭게 내가 가서 내 마음과 내 시간과, 시간이야 여기서 주는 거니까.”

(5) 정치(politics)

지위, 권력, 성, 인종, 계급 또는 좀 더 좁게 정의된 사회적 관계나 정체성과 같은 사회적 재산이 상황에서 연관되어 있거나 연관되지 않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참여자 K의 아이돌보미 활동에서는 아이돌보미의 정체성과 어머니의 정체성이 서로 연관되어 있었다. 참여자 K는 한부모 가정이나 맞벌이 가정과 같이 엄마의 손을 절 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가정에서 아이를 돌볼 때 아이돌보미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아이를 만나고 만남을 통해 아이에게 기쁨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었다. 즉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직업적으로 아이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마음으로 아이를 돌보고 있었다. 따라서 참여자 K는 아이를 돌보는 아이돌보미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정체성을 같이 보여주고 있었다. 이러한 어머니의 정체성이 불안정한 지위와 부당한 처우 때문에 아이돌보미의 정체성에 혼란을 겪고 있는 참여자 K에게 지속적으로 아이돌보미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있었다.

“그래서 제가 돈을 번다라기보다는 같이 얘기를 보면서 노니까 놀면서 그 보수는 따라 온다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즐거워요”

“왜냐면 또 제가 즐거워야 애기들한테도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주로 여자아이들 만나는데 사랑을 표현 하죠. 끌어안고... 막 끌어안고. 그래서 제2의 부모라고도 할 수 있을까?”

“예. 바빠서. 그래서 저는 내가 어차피 가서 밥을 먹어야 되니까 내 먹을 반찬 얘기들하고 같

이 먹는다 싶어서 애기들 입맛에 맞는, 그 수준에 맞는 걸 제가 준비해서 가져드요.”

“여기 어머니는 이렇게 친정엄마한테 엄하게 자라가지고요. 그래서 어머니 성품이 된 것 같아요. 자녀들도 약간 엄하게 키우고 어찌다가, 내 새끼만 위하는 엄마가 아니고요.”

“아니지만 저희는 실질상으로도 자녀들을 키워왔고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 못 다한 사랑 플러스를 이 나라의 아이들한테 정말 몸으로도 해 줘야 되는 입장들이니까 저희의 가치관을 좀 살려주시면...”

(6) 맥락(connections)

상호작용의 연장선과 발언을 넘나들면서 만들어지는 맥락을 일컫는 것으로 서로 연관되어 있기도 하고 아니기도 한 것을 가리킨다. 참여자 K는 아이를 처음 만나서 아이의 특성을 파악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음에도 시간이 지나면서 갈등이 해소되고 보람을 느낀다고 말하였다. 특히 아이가 성장하여 장차 한국 사회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어려움을 쉽게 극복하고 있었다. 결국 아이와의 상호작용이 단지 일회성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이어지는 맥락 속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맨 처음에는 애네들 성격이나 이런 걸 파악하려고 할 때는 너무 힘들었어요. 돈이고 뭐고 다 필요 없을 정도로 했는데. 그래도 다음 날 되면 기쁨이 쏟아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애네들이 희망이잖아요. 희망이고 또 우리나라... 제가 애네들 30년 뒤를 본다면 어떻게 성장할지도 모르니까 힘이 나고 이려는 거예요”

“없어져도 상관없고 근데 제가 지금 어떤 가정에 가서 어떤 아이를 만나서 우리 아이들보다도 조금 더 인성적이라든가 그런 걸 심어줬을 때 이 아이가 얼마나 잘 자랐을까, 내 아이는 아니지만 이 대한민국의 아이잖아요.”

(7) 신호 체계와 지식(sign systems and knowledge)

상황에서 말이나 글, 이미지와 제스처 같은 신호 체계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혹은 연관되어 있지 않은지를 밝히는 것이다. 참여자 K의 경우 ‘시간’이라는 신호 체계가 아이를 돌보는 상황에서 복잡하게 연관되어 있었는데, 이는 아이돌보미 활동이 시간 당 수당으로 지급되는 반면 이동 시간 등에 대한 세심한 고려가 없음으로써 비롯되고 있었다. 예를 들어, 참여자 K는 방문하는 가정이 멀고 교통이 불편하여 활동을 끝내고 집에 올 때 버스가 끊어져 걸어서 오기도 하였는데, 이 경우에도 아이를 돌본 2시간에 해당되는 수당만을 받을 수 있었다. 또한 약속한 시간이 2시간이라 할지라도 부모들이 10분 정도 늦는 일이 자주 있으며, 이렇게 초과한 10분에 대해서는 인정상 수당을 더 요구하지도 못하고 있었다. 결국 아이돌보미로서 참여자 K는 이동과 준비에 소요되는 시간을 활동에 포함시키지 않는 제도의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있었으며, 약속한 시간만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쉽게 규정을 어기는 부모들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였다.

“가는데 뭐 한 30, 40분.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가정 있거든요. 딱 2시간만 쓰는 거예요. 저녁 시간을.”

“병이 났어요. 제가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대중교통도 잘 이용할 수 없는 데 인거예요. 네, 이제 환승을 하는데, 환승도 차가 한군데 뺄 비면 그 집에 지각을 하고 시골이다 보니까 9시 넘으면 버스가 끊어져요. 활동을 끝나고 집에 오려고 하면 버스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한 시간을 걸어서 와야 돼요, 집을.”

“낮에 있는데도 그 긴장감이라는 것이 오늘 저녁에 가야 된다는 것이 어떠한 계획도 못 잡고 있어요. 왜냐면 여기에 가야 된다는 시간관념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딜 가도 아침에 열른 잤다 오던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 조바심이라고

할까. 왜냐면 우리가 없으면 그 아이는 혼자 있게 되잖아요.”

“그니까 좀 이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만약에 10시까지 활동 시간이 딱 종료가 됐는데 10분에서 20, 30분 지연됐다 이럴 때는 1시간 쳐 주기는 하지만 그래도 10분 정도는 매일같이 지각을 해서 엄마들이 늦게 온다 그러면 얘기 할 수도 없고”

2. 자료 분석의 결과

다음은 13명 연구 참여자 각각의 절(stanza)과 이야기(story), 일곱 개의 기본 과업(building task) 들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요소들을 주제별로 정리한 것이다.

1) 낮은 보수

연구 참여자들의 대다수가 경제적 이유로 아이돌보미 활동을 시작하였으나, 아이돌보미의 보수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활동 지속 여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고민은 2010년 7월의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에 대한 바뀐 규정 때문에 한 가정이 아이돌보미를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80시간에서 40시간으로 감소하고 아이돌보미의 보수가 반으로 줄면서 커지고 있었다. 또한 아이돌보미를 이용하는 시간이 오후 4시에서 8시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하루에 두 가정을 방문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서 줄어드는 보수를 메우기 위해 다른 직업을 병행할 생각을 하거나 보수가 더 나은 직업을 찾아서 아이돌보미를 그만 두고 있는 실정이었다. 보수와 관련하여 연구 참여자들이 지적한 또 다른 문제는 교통비나 이동 시간에 대한 고려가 세심하지 못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받는 보수가 더 낮다는 것이다. 이는 지역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여주고 있었는데, 예를 들어 참여자 A처럼 군 단위에서

활동하는 경우, 방문하는 가정이 멀고 교통이 불편하여 2시간 활동을 위해 이동에만 2-3 시간을 소비하게 되는데 이렇게 소진되는 시간에 대한 보상으로 현재의 교통비는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2) 불합리한 처우

보수에 대한 아이돌보미의 불만은 아이돌보미에 대한 처우와도 깊이 연관되어 있었는데, 4대 보험이나 산재 보험에 가입이 되지 않아 감정적·신체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고, 퇴직금이나 기본급이 보장되지 않은 채 시간 당 수당만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직업이 안정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아이돌보미가 겪는 신체적 피해는 직접적으로 돌봄 노동의 질에 영향을 미치면서 돌보는 아이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는 데서 여타 노동과 많은 차이를 보여주고 있었다. 예를 들어, 참여자 F는 아파도 급하게 아이 돌봄 사람을 못 구하는 부모를 생각하여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를 호소하고 있었다. “그리고 저희 감기 오잖아요. 우리가 기침만 해도 엄마들이 싫어하니까 짬 내서 병원 가서 주사 맞고요. 급속도로 몸 괜찮은 주사 딱 맞고 와요. 그래서 애기를 봐주고 왜냐하면 나 때문에 탄 선생님 투입될 선생님도 없고 그럼 그 엄마는 일을 못하고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기침하고 하면 엄마 싫어하고 표시 안내야 되니까 주사 딱 맞고 가요.” 또한 아이를 돌보면서 생기는 허리와 무릎, 어깨 통증 등으로 연구 참여자들 모두 힘들어하고 있음에도 병원비 때문에 통증을 참거나 약국에서 임시 처방약으로 버티고 있었다.

3) 직업의 불안정성

아이돌보미 활동이 시간 당 수당으로 지급되면서 생기는 직업의 불안정성은 전문직업인으로서 아이돌보미가 갖는 사회적 지위를 많이 희석시키고 있었다. 왜냐하면 공식 영역에서 유급으로 일하는 돌봄 제공자임에도 안정적으로 활동이

보장되지 않아 전문직업인으로서 자신의 역량을 강화할 수 없고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현재 센터에서 가정을 배당해 주지 않으면 아이돌보미 활동을 할 수 없고, 정부는 모자라는 아이돌보미 인원을 언제든지 모집하여 채용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 참여자들은 스스로를 일용노동자로 치부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참여자 B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고.”라고 말하면서 아이돌보미 활동을 통해 전문적 역량을 키우고자 했던 초기의 목적이 사라져가고 자존감이 많이 낮아졌음을 보여주었다.

4) ‘시간’에 대한 시각 차이

아이돌보미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영향과 더불어 아이돌보미 활동의 시간 당 수당은 ‘시간’에 대한 시각의 차이를 분명하게 만들면서 아이돌보미와 이용자가정 사이에 갈등을 초래하고 있었으며, 더 나아가 돌봄 노동으로서 아이돌보미 활동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단 10분이 초과되어도 그 시간을 수당과 연결 짓는 반면 이용자가정은 아이를 돌보는 과정에 있을 수 있는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초과 시간에 대해 이용자가정 부모에게 직접 언급하는 대신 봉사하는 마음으로 아이를 돌보고 있었다. 이에 대해 참여자 C는 “그래 내가 애들 얼굴보고 너무 예쁜 짓하고 잘 따라와 주니까 고마워서 그렇게 흘러간다 치더라도, 그게 계속 가버리면 나는 봉사도 밑바닥에 깔고 가는 거예요. 선생님들 다 그러세요. 그렇지만 이게 봉사가 나중에는 안 되는 거야. 내 마음에서도 ‘이렇게 계속 가버리면 안 되지’ ...” 라고 말하였다.

5) 불가피한 가사 노동

돌봄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지불되지 않음은 연구 참여자들이 불가피하게 행하는 가사

노동에서도 나타나고 있었는데, 이는 부모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아이와의 관계, 다른 아이돌보미와 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가사 노동은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의 규정 상 이용자 가정 부모가 아이돌보미에게 절대 요구해서는 안 되는 것임에도 아이를 돌보는 과정에 어쩔 수 없이 발생하게 됨으로써 연구 참여자들의 감정적, 육체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참여자 D는 가사 노동의 여부가 아이돌보미의 질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고, 이것이 아이돌보미 사이에서 갈등을 야기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궁계, 어떤 선이 어떻게, 너무 날카롭게 선이 그 어버리면은 그게 어떻게, 그게 좀, 전제가 좀 그렇잖아요. 근데 아무튼 그 정도는 괜찮겠지만은 참...” “그니까 말을 못 하는 게 저 같은 경우는 가서 일을... 할머니를 도와주잖아요. 그리고 나서 제가 여기를 안 하고 다른 돌보미 선생님 왔어요. 그러면 그 선생님한테 혹시라도 이 가정에서 ‘이 앞전에 선생님 그렇게 했는데 왜 선생님 안 하세요?’ 이 앞전에 선생님 좋다고 비교가 되고 그러면은 이게 언젠가는 그 선생님이 불만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서로 말을 못하는 거예요.”

6)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

연구 참여자들 중 많은 수가 아이들이 좋아서 아이돌보미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이러한 이유가 아이돌보미의 보수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돌보미 활동을 지속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특히 한 가정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아이를 돌보는 경우에 부모 이상의 상호작용을 통해 아이와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관계의 양과 질이 연구 참여자들로 하여금 일의 보람을 느끼게 하여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다음 참여자 E의 이야기는 아이돌보미와 아이와의 긴밀한 관계가 활동의 원동력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한 예이다. “진짜 돈 생각하면은 하기 싫어요. 다른 걸 해

볼까...” “다문화가정의 4살짜리는 아예 선생님이라고 안 해요. 무조건 엄마예요.” “지네 엄마가 일을 마치고 와도 엄마는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럼 지네 엄마가 ‘정가희, 엄마 왔어. 알아?’ 그러고도 계속 나를 못 가게 해요. ‘엄마 가지마.’” “그 정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거지.” 참여자 J 역시 아이와의 관계 때문에 보수에 대한 불만족을 극복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었다. “저희 선생님들 보면 거의 1년 넘으신 분들 많기 때문에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 얘기 보는 마음들이, 얘기 보는 시선들이 다 한결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거지 돈을 보고는 못해.”

7) 일의 보람

연구 참여자들이 특히 일의 보람을 크게 느끼는 경우는 아이와의 관계가 진전되면서 아이의 변화를 확인할 때였다. 이렇게 느끼는 일의 보람은 아이돌보미 활동을 하는 과정에 종종 만나게 되는 다루기 힘든 아이 때문에 겪는 심리적, 육체적 고통을 상쇄할 정도로 아이돌보미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참여자 L의 경우, 아이로부터 욕을 듣고 뺨까지 맞으면서 받은 상처를 다른 아이로부터의 긍정적 피드백으로 보상받은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7살짜리 애가, 기억에 남는 게 그 애가 참 힘들게 했어요, 저를. 정말 문제도 많이 일어나고, 의자 갖고 집어 던지려고 하고, 동생 너무 많이 때리고 이런 경우였는데, 그 아이가 마지막 날에 개하고 같이 있는데, 오라고 했는데 시간이 안 맞아서 못 갔는데, 마지막 날에 개를 보냈는데 나보고 ‘선생님, 그동안 참 힘들었죠?’ 이러더라고요. ‘알긴 아는구나.’ 이랬더니 ‘그래도 저, 선생님이 사랑하는 줄 다 알고 있다고. 나중에 나 선생님 꼭 찾아온다고’ 그 말을 7살짜리가 하는데 너무 귀여워가지고 ‘그래, 나 너 많이 사랑했다’ 그랬어요. 선물 준다고 영똥한 자기 장난감을 나 준다고 갖고 가라고, ‘야, 선생님 필요 없는데 너 가지고 가서 써라.’ 그게

제일 기억에 남아요.”

8) 발달을 위한 다양한 전략 구사

아이와의 관계 진전을 위해 아이의 특성에 맞는 상호작용 방법을 찾는 등 연구 참여자들은 일대일 만남을 통해 아이의 발달을 극대화할 수 있는 다양한 전략을 사용하고 있었다. 참여자 G는 아이가 불안 때문에 잠을 잘 자지 못하고 밤에 집을 나가서 돌아다닌다는 사실을 알고 아이가 잘 때까지 기다리고, 그러다보면 10시까지 기다리다가 11시가 돼서야 집에 오기도 하였다. 참여자 D는 아이를 딸처럼 대하면서 목욕을 시켜주고 옷까지 사다준 적이 있었다. “개가 어떻게 보면 자폐아 같은 그런 특색이 있거든요. 개는 말을 안 걸고 굉장히 사랑으로 안 해주면 그 애는 혼자 구덩이를 팔 수 있는 그런 성격을 가진 애예요. 그래서 저는 내 딸처럼 제가 목욕 다 씻겨주고 이렇게... 드라이로 머리 다 말리고 심지어 집에서 입는 옷까지 우리 집에서 다 사놓고 제가 다 내 딸처럼 제가 돌보았는데...” 참여자 F는 아이들에게 ‘선생님’이라는 호칭 대신 ‘할머니’라고 부르며 함으로써 아이와의 서먹함을 해소하고 언어 장애가 있는 아이에게는 노래를 부르며 함으로써 언어 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있었다. 참여자 I는 아이와 함께 문화센터나 놀이터, 놀이방, 도서관 등을 방문하여 아이에게 다양한 문화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었다.

9) 경제적 손실

연구 참여자들이 아이와의 상호작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다양한 방법들은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구함으로써 연구 참여자들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고 있었다. 특히 한부모 가정이나 저소득층의 맞벌이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연구 참여자들은 온정 때문에 약속된 시간만 근무하고 발길을 돌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비를 털어서 아이들 간식을 챙겨주고 있었다. 연구 참

여자들 역시 경제적 이유로 아이돌보미 활동을 할 만큼 형편이 넉넉지 않음에도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을 외면하지 못하고 도와주고 있는 것으로, 이로 인한 심리적 갈등과 금전적 손실 때문에 힘들어 하고 있었다. 다음 참여자 J의 경우는 이러한 갈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 “자녀가 돌이예요, 한부모가. 근데 그 친구를 데리고 있는데 솔직히 6만 원 한 달 요금 내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러워 해요. 솔직히 너무 힘들어하고. 그리고 저 역시 물론 아이들이 예쁘고 이 가정이 정말 말 언니, 동생으로 친하게 지내고 선생님이라고는 하지만 친하게 지내는 그 인간관계 형성이 돼 버리니까 아이들 먹는 것만큼 무시 못 하는 거예요. 벌어들인 소득보다 어찌 보면 샘샘? 아니면 더 마이너스가 된다고 볼까요?” 결국 연구 참여자들은 낮은 보수 때문에 아이돌보미 활동을 그만두고 싶어도 자신을 필요로 하는 누군가를 도와준다는 사실에서 일의 보람을 찾고 있었으나, 끊임없이 요구되는 의무와 책임 때문에 활동의 지속 여부를 계속 고민하고 있었다.

V. 논의 및 결론

1. 논의

본 연구는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자체에 중점을 두고 사업의 활성화와 개선 방안을 다루었던 선행 연구들과 다르게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아이돌보미의 활동을 통해 아동 돌봄의 본질과 양상을 파악하고 분석하였다는 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선행 연구들이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을 다각적으로 평가하여 사업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의 모색에 중점을 두었던 반면 본 연구는 아이돌보미 활동을 통해 나타나는 돌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등 돌봄의 질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해답을 찾고 있다. 예를 들어, 변미희 외

(2007)의 연구는 아이돌보미의 저임금 문제와 이로 인해 야기되는 전문성 약화와 사기 저하 등을 지적하면서 활동비 인상을 제언하고 있다. 반면에 본 연구는 시간 당 수당으로 지급되는 아이돌보미의 보수와 초과 시간 근무가 불가피한 현실에서 실질적인 보수가 낮을 수밖에 없는 이유와 이로 인한 심리적 갈등까지 보여줌으로써 돌봄의 본질과 양상을 상세히 다루고 있다. 특히 ‘시간’에 대한 아이돌보미와 이용자가정 사이의 시각의 차이를 통해 아이돌보미와 이용자가정 사이의 갈등을 보여준 것은 양적 연구가 아닌 질적 연구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결과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연구 참여자의 관점에서 행위를 이해하려는 질적 연구의 목적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아이돌보미 활동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제시하고 있으며, 아이돌보미 지원사업과 관련한 선행 연구들과의 뚜렷한 차별성을 보여주고 있다.

Gee(2005/1999)의 담화 분석(Discourse Analysis) 방법에 의해 도출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첫 번째 연구 문제인 아이돌보미가 경험하는 아이돌보미 활동은 공식영역의 유급 노동임에도 헌신과 애정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지불되지 않은 채 아동 돌봄에 대한 의무와 책임이 강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 돌봄에 대한 사회적 지원체계로서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이 실시되는 것임에도 전통적으로 가족이 책임졌던 돌봄 노동을 아이돌보미가 대신 수행하고 있을 뿐 돌봄 노동의 경제적 가치가 여전히 인정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주로 어머니에게 강요되었던 의무나 헌신, 신뢰, 충성이라는 윤리적 측면이 아이돌보미가 책임져야 할 몫으로 강요되고 있으며, 시간 당 수당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이러한 측면에 대한 충분한 보상으로 비춰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사회적 관계로서 아이돌보미와 아이의 관계가 성격 지워지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와 아이의 관계를 대치하는 하나의 개인적 관계로 규정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이돌보미가 경험하는 아이돌보미 활동은 어머니 역할을 대신 수행하는 것으로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전문직업인으로서 자신의 역량을 키우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다.

아이돌보미가 수행하는 어머니 역할은 한부모 가정이나 맞벌이 가정과 같이 부모의 빈자리가 클수록, 아이와의 관계가 오래 지속될수록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손길이 미치지 못함으로써 생기는 돌봄의 공백을 아이돌보미가 채워주고 있는 것으로, 아이돌보미의 정체성보다는 어머니의 정체성이 크게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아동 돌봄의 특성상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이 제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직업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추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아이돌보미의 정체성은 점점 더 희박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즉 능력과 경험을 갖춘 전문직업인으로서 아이돌보미가 양산되고 경험이 축적되어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돌보미 개인의 역량과 열정에 의존하여 아이돌보미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결국 개인의 열정과 에너지가 소진되는 시점에 아이돌보미를 그만두는 현상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이는 초기 아이돌보미 활동을 시작한 대다수가 그만두고 소수만이 남아있다는 사실에서도 입증되고 있다.

아이돌보미 활동을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아이돌보미 개인의 열정과 에너지를 가장 소진케 하는 요소로 나타났다. 아이돌보미 활동이 아이를 돌보는 것임에도 실제로 아이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부모, 센터 종사자, 다른 아이돌보미 등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렇게 아이를 둘러싼 사람들과의 관계가 아이와의 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가사 노동이나 초과 시간에 대한 문제로 부모와의 관계가 불편해지고 이로 인한 감정적 스트레스가 아이와의 관계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용자가정이나 시간을 배정받는

과정에서 센터 종사자와의 종속적 관계 때문에 자존감이 낮아지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는 관리자의 중요한 역할로 아이돌보미의 사기 진작과 자긍심 향상을 지적하고 있는 이승미와 김선미(2011)의 연구에 의해서도 뒷받침되는 것으로, 아이돌보미의 입장과 의견이 무시된 채 가라앉고 오라면 오는 식의 일방적 운영 방식에 따라 아이돌보미가 주체적으로 활동하지 못하고 있음을 가리킨다. 결론적으로 돌봄 노동이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 이루어지며 관계가 중요시된다고 강조한 Daly(2000)의 지적처럼 아이돌보미 활동 역시 아이뿐만 아니라 아이를 둘러싼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의 두 번째 연구 문제인 아이돌보미 활동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는 우선 아이돌보미 활동의 지속성이 보장되지 않음으로써 양질의 돌봄이 제공되기 힘들다는 것이다. Folbre(2001)의 주장처럼 돌봄 노동은 일대일의 관계로 이루어져 표준화되거나 객관화될 수 없는 개인별 맞춤 지식을 요구한다. 따라서 아이돌보미는 아이의 기질, 성격, 발달 정도와 같은 개인적 특성뿐만 아니라 부모, 형제, 조부모, 심지어 이웃의 특성까지 파악하여 아이의 발달에 가장 적합한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특성의 파악과 전략의 개발은 장시간의 관찰과 시행착오를 통해 이루어지며, 전문적인 지식을 기반으로 끊임없이 수정되고 보완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 아이돌보미와 아이의 지속적인 관계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아이돌보미가 아이의 특성을 파악하기도, 부모와의 신뢰를 형성하기도, 아이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기도 힘든 상황이므로 양질의 돌봄이 제공되기 어려운 것이다. 그러므로 아이돌보미 활동의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이고 현실적인 급여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전문직업인으로서 아이돌보미가 갖는 사회적 위상을 확고히 하

여 아이돌보미의 이직률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아이돌보미와 아이의 지속적 관계를 보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이돌보미의 경험과 지식이 축적됨으로써 역량이 강화되어 양질의 돌봄을 제공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아이돌보미 활동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아이돌보미의 처우와 지위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음으로써 아이돌보미가 자아 위축과 정체성 혼란을 경험한다는 것이다. 아이는 아이돌보미와의 관계를 통해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법,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는 법, 세상과 소통하는 법 등을 배운다. 아이는 잠재적 교육과정을 통해 아이돌보미의 세계관이나 가치관, 인생관 등을 학습할 수 있으며, 아이돌보미가 가지는 삶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시각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아이돌보미의 낮은 자존감은 아이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러한 영향은 아이가 성인이 됐을 때까지 지속될 수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국가와 사회에 심각한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데, 왜냐하면 세대적 재생산노동으로서 사회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자녀 양육의 돌봄 노동이 자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4대 보험이나 산재 보험의 가입, 퇴직금이나 기본급의 지급 등 아이돌보미의 처우와 지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순차적으로 마련되어 아이돌보미가 현재의 일용직이나 임시직의 처지에서 벗어나 전문직업인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이의 장래를 책임지는 전문직업인의 정체성을 확립한다는 것은 아이돌보미가 아이돌보미 활동을 통해 자아실현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것과 아동 돌봄에 대한 사회적 지원체제로서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이 제대로 정착되어 양질의 돌봄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아이돌보미 활동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아이돌보미 활동에 연관된 사람들 사이의

소통을 가능케 하는 장치가 부재함으로써 아이돌보미에게 과중한 의무와 책임이 요구되고 있다는 것이다. 아이돌보미는 아이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부모, 센터 종사자, 다른 아이돌보미 등 아이를 둘러싼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으며, 각각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불만이나 요구 사항을 모아줄 장치가 부재한 상태에서 아이돌보미가 모든 문제를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가사 노동의 경우, 아이돌보미 활동 규정 상 금지되어 있는 사항임에도 아이돌보미는 부모와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자 직접 센터에 항의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감정적 스트레스와 육체적 피로가 아이한테 고스란히 전가되어 돌봄의 질이 떨어지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전문직업인이 아닌 어머니 역할을 대신하는 사람으로 아이돌보미가 인식됨으로써 어머니로서 아이돌보미가 당연히 해야 할 일들로 가사 노동이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공식적 통로가 부재함을 가리키고 있다. 따라서 아이돌보미가 모든 문제를 떠안고 혼자서 해결하고, 그러다 지치면 그만 두는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이돌보미 활동에서 제기되는 여러 문제와 의견을 수렴하고 공식화하여 개선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는 아이돌보미가 받는 감정적 스트레스를 최소화하여 항상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유지함으로써 아이에게 최상의 컨디션으로 최고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2. 결론

본 연구는 아이돌보미 활동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안정적이고 현실적인 급여 체계 마련, 아이돌보미의 처우와 지위 개선 방안 마련, 소통 장치 마련 등 세 가지를 제안하고 있다. 안정적이고 현실적인 급여 체계는 아이돌보미 활동

의 지속성을 보장하며, 아이돌보미의 처우와 지위 개선 방안은 아이돌보미의 자아실현과 정체성 확립을 도와주고, 아이돌보미 활동에 연관된 사람들 사이의 소통 장치 마련은 활동에서 제기되는 여러 문제와 의견을 수렴하고 공식화하는 것을 가능케 할 것이다. 즉 돌봄 제공의 당사자인 아이돌보미의 관점과 입장에서 아이돌보미 활동을 평가하고 돌봄의 질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돌봄의 질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해답을 찾고 있다. 돌봄 노동은 Folbre(2001)가 강조하듯이 일대일의 관계로 이루어지며 정서적인 요소를 포함하기 때문에 그 상호작용의 질이 매우 다양하며 질을 측정하기가 아주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일대일의 관계는 개인적 관계로 보이지만 사회적 관계(Daly, 2000)로 다양한 사람들의 이해와 요구가 반영되기 때문에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그리고 처한 상황과 조건에 따라 다르게 평가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가 제안하는 세 가지 개선 방안은 아이돌보미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함과 동시에 아이돌보미가 처한 상황과 조건을 개선하는 것에 의해 돌봄의 질이 향상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지금까지 다루어지지 않았던 돌봄 노동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추어 돌봄의 질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를 함으로써 사회적 활동으로서 돌봄 노동이 더 이상 양적 확대가 아닌 질적 제고에 초점을 두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가족의 양육부담을 경감시키는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에도 돌봄 제공의 당사자인 아이돌보미의 처우나 지위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부족함으로써 양질의 돌봄을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 양질의 돌보미 양성과 지속적인 보수교육, 철저한 사후관리(변미희 외, 2007)를 통해 돌봄의 질을 향상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돌봄의 질 향상을 아이돌보

미의 의무와 책임으로 떠안기고 있다. 이는 아이 돌보미가 어머니를 대신하여 어머니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공적 영역에서도 돌봄 노동이 여전히 여성의 몫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돌봄 노동은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비생산적인 것으로 취급되면서 아이돌보미에게 주어지는 낮은 보수와 불합리한 처우가 정당화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아이돌보미의 낮은 처우와 지위는 여전히 국가가 돌봄 노동을 비생산적이고 무가치한 것으로 치부하고 있다는 것과 아이돌보미의 헌신과 애정에 의해 국가의 남성 중심적인 가부장제가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국가의 인식과 태도가 바뀌지 않는 한 공식 영역에서 유급으로 일하는 돌봄 제공자로서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전문직업인이 되고자 하는 아이돌보미의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이 실질적으로 아동 돌봄의 사회적 지원체계로서 자기 역할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돌봄의 양상과 본질에 초점을 맞추고 질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제도와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끝으로 향후에 아이돌보미 활동에 관여하고 있는 센터 종사자나 이용자가정의 입장과 관점에서 아이돌보미 활동을 평가하는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 돌봄의 질적 개선을 위한 총체적인 방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1) 김영천(2010). 질적연구방법론 I. 서울: 문음사.
- 2) 김승권·선우덕·변용찬·황나미·윤상용(2006).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서비스 활성화 방안.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3) 김종숙·신선미·오은진·강민정·주무현·성상현·최현수(2010). 제2차 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가족부.
- 4) 변미희·강기정·정희정(2007). 아이돌보미 시범사업평가 및 정책방향.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1(2), 67-83.
- 5) 서문희·김은설·최진·안재진·최혜선·김유경·조애저(2009).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 보고서. 서울: 보건복지가족부, 육아정책개발센터.
- 6) 신재명(2006). 방과후 아동지도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광운대학교 정보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 논문.
- 7) 유아량(2008). 일-가정 양립을 위한 돌봄노동의 사회적 지원 연구: 취업여성의 유아기 자녀 양육지원의 이용실태와 요구도를 중심으로. 울산대학교 일반대학원 가정관리학과 석사학위 논문.
- 8) 이승미·김선미(2011). 이용자관점에서 본 아이돌보미지원사업의 특성과 개선방안에 관한 기초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9(4), 51-65.
- 9) 이재인(2006). 노동권과 부모권의 관점에서 본 한국의 보육정책. 가족과 문화, 18(2), 67-88.
- 10) 이혜윤(2008). 학령기 저소득층 가정의 통합적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방안에 관한 질적연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아이돌보미사업을 중심으로. 울산대학교 대학원 가정관리학과 석사학위 논문.
- 11) 장혜경·김영란·김필숙(2008). 돌봄노동의 분야별 제도화 방안 연구(I): 가족내 아동돌봄도우미를 중심으로(총괄보고서).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12) 장혜경·홍승아·김영란·김수정(2005). 가족내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적 지원방안 연구.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 13) 전병힐(2009).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에 대한 소고. 재정포럼, 14(2), 46-60.
- 14) 전춘애·이종남·방한별(2009).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가정 실태 및 가정유형에 따른 서비스 만족에 관한 연구. 서울 거주 아이돌보

- 미 서비스 이용 가정을 중심으로 한국가정
관리학회지, 27(3), 225-237.
- 15) 조한혜정(2006). 토건국가에서 돌봄 사회로:
여성 네트워크에 의한 새로운 인프라 만들
기. 조한혜정 외(2006). 가족에서 학교로 학
교에서 마을로: 돌봄과 배움의 공동체(pp.
13-41). 서울: 또 하나의 문화.
 - 16) 허라금(2006). 돌봄의 사회화. 조한혜정 외
(2006). 가족에서 학교로 학교에서 마을로:
돌봄과 배움의 공동체(pp. 42-58). 서울: 또
하나의 문화.
 - 17) 허선미(2009). 돌봄 노동의 관점에서 본 고학
력 주부 자원봉사활동의 특성과 의미: ‘D시
교육청 학생상담자원봉사’를 중심으로. 상지
대학교 대학원 학과간 협동과정 여성학과 석
사학위 논문.
 - 18) 현진권(2004). 보육재정의 확충과 시장규제.
재정포럼, 9(8), 31-44.
 - 19) Daly, M. (2000). Paid work, unpaid work
and welfare: Towards a framework for
studying welfare state variation. In Boje, T.
P., & Leira, A. (Eds.), *Gender, welfare
state, and the market: Towards a new
division of labour* (pp. 23-40). London:
Routledge.
 - 20) Daly, M., & Lewis, J. (2000). The concept
of social care and the analysis of
contemporary welfare state.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51(2), 281-298.
 - 21) Folbre, N. (2001). 윤자영 역(2007). 보이지
않는 기쁨: 돌봄 경제학. 서울: 또 하나의 문
화.
 - 22) Gee, J. P. (2005/1999). *An introduction to
discourse analysis: Theory and method* (2nd
ed.). New York: Routledge.
 - 23) Graham, H. (1983). Caring: a labour of love.
In Finch, J., & Groves, D. (Eds.), *A labour
of love: Women, work and caring* (pp.
13-30).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 24) Lincoln, Y. S., & Guba, E. G. (1985).
Naturalistic inquiry. Newbury Park, CA:
SAGE Publications, Inc.
 - 25) Merriam, S. B. (1998). *Qualitative research
and case study applications in education:
Revised and expanded from case study
research in education*. San Francisco, CA:
Jossey-Bass Publishers.

- 투 고 일 : 2011년 10월 1일
- 심 사 일 : 2011년 10월 7일
- 심사완료일 : 2011년 11월 11일